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워크숍 개최

편집부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 시상식 및 「아름다운 화장실, 그 변화의 내용을 논함」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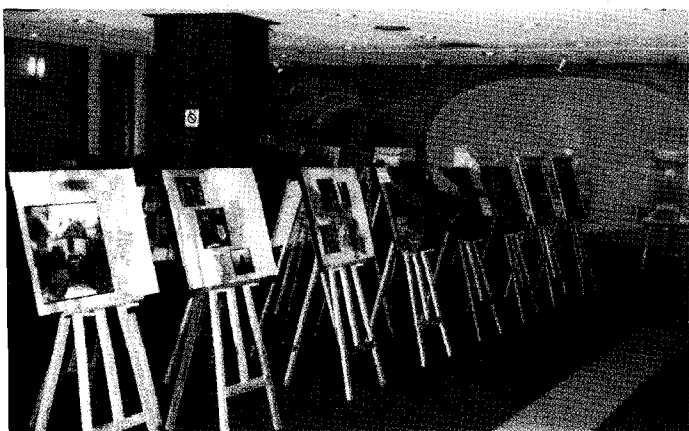
- ▶ 일시 : 2000. 10. 27(금) 10:00~16:1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3층)
- ▶ 주최 : 월드킴문화시민중앙협의회 · 조선일보사
- ▶ 후원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환경부

“작년의 이 자리가 ‘변화의 계기’를 위해 모였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따뜻한 충고와 함께 더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월드킴문화시민중앙협의회 이영덕회장 (前국무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화장실 2000 심사평

워크숍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하동철 심사위원장(서울대 미술대학장)은 심사보고를 하며 금년에는 업소화장실보다 공중 및 다중 화장실의 경쟁률이나 질적 변화가 월등하여 공공의식이 모자랐던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이번 화장실 포럼에서는 반대로 드러나고 질적 병폐도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듯하여 감동적이며, 대상(大賞)으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문막(하)휴게소는 정원을 실내에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발상이 뛰어난데다 외부 경관과의 연계성이 돋보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화장실 관계자에게 당부를 통하여



WORK SHOP 주제 발표 내용은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작 사진은 11월 16일~12월 23일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 순회전시회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www.2002cultu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가 다 훌륭하고 자재의 질감 선택도 우수하였지만 마지막 손질에서 값싼 조화나 그림으로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며, 차라리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자료였다면 관광문화 확산의 효과도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Eco Toilet System Design

디자인의 배경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E.T.S.D (공동체를 위한 공간조성)을 연구발표한 이화여대 최경실 교수 (조형예술대학)는 바람직한 공중화장실의 디자인 제안에서 환경친화적인 재료 및 설비를 바탕으로 기존의 화장실 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인간행태를 지원해주는 문화공간으로 작용하는 화장실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제1분과 -

아름다운 화장실, 변화의 물결과 지향

조선일보 박승준 국제부장이 발표하고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해령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 제1분과는 언론에 보도된 화장실 관련 비판여론과 긍정적인 여론들을 설명하며,

▶ 올해 새로 선보인 우수 화장실 사진에 자세한 설계 내용이 첨부되었다.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2분과 -

화장실 청결관리의 제도 및 기술적 접근

(주)무림교역 이상정 회장이 발표하고 한국도로공사 윤서현 총무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 제2분과는 일본과 미국의 화장실 유지관리 활동을 설명하며 화장실 유지관리의 기본 체제인 5가지요소(일상청소, 점검, 정기청소, 전문관리, 보수)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도라고 설명하였다.

제3분과 -

아름다운 화장실과 실내·외 디자인

삼우설계소 최우정 소장이 발표하고 숙명여대 이진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제3분과는 화장실 역사 및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화장실은 숨겨진 공간에서 보여주는 공간으로 발상을



■ 문화시민운동

- 친절운동 - '나 하나의 친절이 내가 속한 사회의 얼굴을 바꾼다.'
- 집서운동 -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 청결운동 - '자신과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자.'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단계에서 유지 보수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할 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4분과 -

화장실 냄새와 정화처리의 개선방안

동양공업대학 전영상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제4분과는 공중화장실의 자연친화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정화처리 기술에 대하여 5가지 예를 들며 설명하였다.

종합토론 -

변화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토론

종합토론에는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방송인 이 참(前 이한우), 작가 도다이쿠코, 박연수 운영국장이 참여하여 열띤



▲ 정원을 실내에 들어 놓은 듯한 자연친화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문맥(하)휴게소가 '아름다운 화장실'대상을 수상했다.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춘강 회장은 일부언론에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부정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아직은 비판할 때가 아니며,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시민단체 활동 내용을 설명하였다. 방송인 이 참씨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하며 '돈을내고 들어간 해수욕장의 화장실이 불결하여도 항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여 행사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해수욕장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 사진별로 설명서가 부착되어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고있다.

2002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
 2002년 5월 31일 ~ 6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월드컵의 공식 마스코트로
 출구를 시험하는 천상세계의 지도자와 두 어린이로
 형상화 되어 있다.



도다이쿠코 작가는 외국인이 느낀 한국의 화장실 실정을 객관화 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외국인 전용화장실」의 설치는 과용이며 한글을 모르는 것을 감안하여 그림표시(픽토그램)와 불편사항 문의를 외국어로 표기해 주면 좋겠다고 하며, 어린이부터 올바른 사용습관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에도 여성흡연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화장실에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해 주면 담배꽂초로 인하여 번기가 막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인은 비흡연자 라고 전제하면서)

박연수 운영국장은 공중화장실 신축에는 많은 장치에 예술·기술·아이디어가 복합체를 이뤄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높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 하지만 비싼 화장실이 대상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며, 주변환경과의 조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88올림픽 때에 식당의 주방이 개방되는 성과를 남겼는데 2002월드컵이 끝나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쳤다.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작

대상(1)

화장실명	소유자 (관리자)
문막(하)휴게소	태경산업(주)

최우수상(3)

화장실명	소유자 (관리자)
전망좋은	수원시장
광진구청 교통민원실	광진구청장
롯데쇼핑 대전점	롯데쇼핑(주)

우수상(3)

화장실명	소유자 (관리자)
만장굴	복제주군수
산청(상)휴게소	조희옥
살림채식부페	김원순

우수기관(3)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특별상(12)

화장실명	소유자 (관리자)
자연빛	전쟁기념사업회
청담역	서울도시철도공사
연무정	수원시장
설악산 노루목	국립공원관리공단
안동시민종합회관	안동시장
광안리 제1	수영구청장
수성구청 민원실	수성구청장
여주(하)휴게소	태아산업(주)
한빛남·한솔반	인제남초등학교
김해여객터미널	김해시장
커티샤	이연학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쇼핑(주)